

2 0 2 3 지 구 촌 교 회

#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Sharing Jesus!

VOL.16

2023 1-2



# 바로와 요셉의 만남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성가

지 412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 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
-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 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 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 19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 20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 21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 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23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 24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1. 술 말은 관원장에게 잊힌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지체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히브리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이던 요셉이 왕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제국의 왕은 그들의 문화에서 태양의 아들로 추앙받을 정도였는데 신적 존재인 바로가 감옥에 있던 노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을 궁금해하던 바로 앞에 요셉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16절)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왕과 애굽 온 천하는 보잘것없는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위해 수염을 깎고, 자리에 걸맞은 옷 단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요셉의 옷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피는 재미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은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왕 앞에 서며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요셉에게 은혜의 옷, 믿음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적 고난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형통의 미래로 바꾸어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소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건져내셨듯이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 바로의 꿈 해석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복음성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25-36

- 2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 26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 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 28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 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 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 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 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 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 35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 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1.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이야기했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나와서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도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자신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요셉은 바로가 꾸는 두 번의 꿈이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을 의미하고, 마르고 흉한 소와 속이 빈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곧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 곡물을 거두고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이를 해석하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함께 하기에 온 땅에 가득한 재앙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나아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소개해 봅시다.

# 총리가 된 요셉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 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 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 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 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엮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 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1.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인생역전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요셉)의 극적인 인생역전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인보다 한 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특히 요셉을 통해 대기근의 때를 대비하게 하시는 것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 애굽과 주변 각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아들에서 순식간에 낮아져 비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이 크게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축복과 기쁨이 따르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요셉이 누렸던 기쁨은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 '꿈꾸는 자'란 별명을 얻었지만, 꿈과 다르게 그의 삶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이였을 때는 종답게, 죄수였을 때는 죄수답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마침내 주어진 기쁨은 그저 그의 신세가 나아져서 생겨나는 기쁨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하며 섬겨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꿈 대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놀랍고,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야말로 요셉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성공으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모른 척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고통스러울 때, 요셉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기근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복음성가

지 474장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50-42:5

-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 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던라
- 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 55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던라
- 01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 0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 03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 04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 0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1. 요셉의 꿈 해몽대로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각국에는 기근이 닥쳐왔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듯 보이는 시대에도 영적인 기근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 불안이라는 영적 기근에 허덕인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세상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바로 '나'입니다.
  
2. 야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열 명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요셉을 팔았던 열 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또 죄수로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 하사 높은 곳에 앉으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이 범했던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등의 죄들을, 오늘의 나 또한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요셉을 찾아온 형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복음성가

지 357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6-17

- 0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 0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 08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 0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의 뜻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 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 13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 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1. 7년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모아 두었던 식량을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2.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애굽의 사정을 엿보기 위한 가나안의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위기에 처한 형들은 우연히 자신의 가정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 말을 토대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오해를 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통해 가정은 한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약점을 끌어안을 때 가정은 더욱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애굽의 총리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형제들의 심정을 어땠을까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향유를 부은 여인



###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복음성가

지 465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36-50

-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 라 하거늘
-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 41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족 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족는데
- 42 값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 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 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 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 시니라



1. 한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집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무리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했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도리어 감사와 감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2. 누가복음에는 소외되고, 하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추악한 세리, 더러운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을 본보기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사건과 빛을 탐감 받은 사람의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없이 기뻐할 일이지, 나의 기준과 잣대로 재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모셨지만 풍성한 교제도 없었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도 없었던 시몬은 여인을 통해서 자신과 주님과와의 관계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나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과와의 풍성한 관계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성령과 바알세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성가

지 143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22-30

-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1.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있었고, 오늘 예수님이 행한 치유의 기적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한 것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일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은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귀신의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적 앞에서 다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많은 신들 중 높은 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면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됩니다. 사탄과 사탄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선포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성가

지 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나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1.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독사에게서 태어난 자들아’라는 의미입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부정적인 동물이기에 매우 모욕스러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였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시더라도 악하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쫓아냈다고 비방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마귀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2.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땅속에 3일을 머무실 것이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죽은 듯했으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올 수 있었듯이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이적과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메시야 이심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야 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상 놀라운 어떠한 새로운 이적이 베풀어진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란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한 주간 내가 했던 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악하고 음란한 세대



##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복음성가

지 292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37-52

-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 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 41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 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4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 44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 45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 46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도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 48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 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 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정결 예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위선을 꼬집어내어 지적하시기 위해, 또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기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는 붙들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본질과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십일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고, 자신 안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럴듯한 우리의 종교적 겉모습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번엔 한 율법교사가 따지고 나섭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에 도취한 나머지,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얼마나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10년, 20년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 또는 성경 지식 등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취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경력이나 직분, 혹은 성경 지식 등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본문 속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가졌던 이중적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 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가정 예배가 후손에 끼치는 영향



왜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후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즐기며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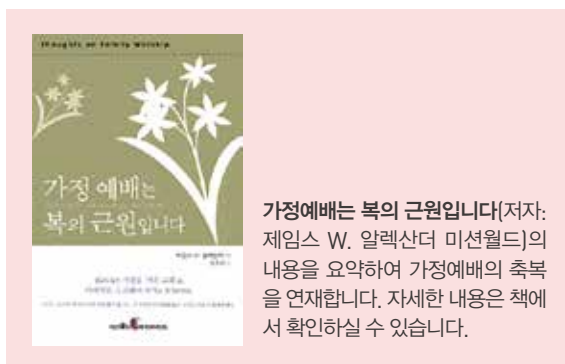
기독교는 우리가 항상 자녀와 후손에게 관심을 가지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찬과 침례와 같은 예식은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의 헌법은 후대까지 고려하여 국가가 안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입법하였습니다. 애국자와 부모는 자신보다 후손에게 더 유익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와 후손을 위하는 사람은 나라의 법과 제도를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영국의 후세를 생각하는 부호들은 자기 가족에게는 재산의 일부만 물려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후손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직접적인 경로는 가족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야를 미래로 넓혀 생각할 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준수한 가정 예배로서 그 의미를 후손에게 길이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절로 상속받거나 후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녀와 조국을 위하여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야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자 자식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후세를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와 주일학교 교사와 성경 보급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후손과 온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길이 물려주는 직접적인 도구임을 인식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쳐 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신음하던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사54:13)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존귀하신 하나님!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기도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름답게 채워지고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제가 더욱 하나가 되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우리 가정의 빛나는 보석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며, 머리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자녀이름**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녀이름**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자녀이름**을 도우사 **자녀이름**로 환난을 벗어나 **자녀이름**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상4:10] 아멘!

**자녀이름**의 주인이신 주님! 야베스의 기도가 **자녀이름**의 삶에 응답되길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자녀이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빛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해에 **자녀이름**에게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자녀이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삶의 고난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부모님의 기도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은혜를 주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